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예배>

주제 :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본문 : 요한복음 3장 16-18절

<R>

금주는 앞에서도 사회자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해주는 기간이에요. 많이 받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생각은 너무 높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람은 받아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한지 모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살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망의 운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한단데.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어요. 이 설교는 성경을 2천 독 읽고, 수도생활 20년, 60년 동안 신앙 변하지 않고 개인의 기준을 세우고, 가정의 기준을 세우고, 민족의 기준을 세우고, 세계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것도 이기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60개국 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60개 나라 교회를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어서 . 지금 하는 이곳도 하나님이 디자인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상이 돼서 만들어 졌다 했습니다. 그정도 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2번 썼어요. 더 좋게 하려고 또 쓴 거예요.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받아서 갖고 와서 겨우 한 번 읽어보고 전해줍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안 믿으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원한 육신 일생동안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가고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자기 먹고 살만치 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 믿고 구원받고 육신은 축복 받고 살다가 가는 것이고. 휴거라는 것은 구약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다. 신약 때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사랑하고 살았다. 이것도 하나의 휴거다. 알면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외쳐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생한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것도 말만 그렇지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진리요, 잘못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런 자들은 내가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꼴을 못 본다. 나의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정하고 심판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했습니다. 사명자만이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정말 없는 줄 아느냐? 아벨의 피로부터 요 밑에 세례요한 아버지 죽은 것까지 다 담당하라. 심판했죠. 말한 대로 심판 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말 잘할 때는 구원을 주려 했다. 말 안 들을 때는 심판을 해서 다시 구원하려 하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 준 것을 하나씩 설명해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그 보낸 자로 하십니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 왕들 시대 때는 왕들. 다윗 같은 자를 통해서 민족의 국운을 해결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보낸 자 메시아를 쓰셔서 해줍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고 큰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어요. 큰일은 무조건 부모가 합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큰 작업할 때, 큰일은 모두 크레인, 포크레인 이런 큰 중장비가 나타나서 일합니다. 사람이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 톤, 2천 톤을 들 수 있습니까? 큰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같은 것은 국가가 감행하죠. 모두 같이 의학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이 큰일은 큰 사람이 해결하고 작은 일은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은 또 사람들을 통해 받게 됩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평생 주는 음식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계나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73억이 할 수 없는 지구를 돌리는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6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봤는데 꼭 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하나 했을 때 걱정마라. 내가 지구상의 전체를 다 아니 73억 어디서든지 도울 수 있으니까 너만 잘하라.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죠? 만물 갖고 하지. 바람갖고 하고 또 각종 만물의 움직

임을 통해서 한다. 동물을 통해서도 하고. 어느 때는 개미 통해서도 도울 수 있더라. 개미하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깨닫게 해줄 때도 있다. 그랬더니 죽음도 피하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새들이 잘 놀다가 그냥 막 무섭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적이있구나 하고 전진하려다가 바위 뒤로 숨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보니까 적들이 20명이 오고 있었어요. 갔으면 바로 죽었죠. 나는 전쟁터에서 제일 큰 것만 30번 이상 죽음을 피했어요. 일생 살면서도 30번 이상 죽을 뻔 했어요. 다른 것까지 합치면 100번도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려 기도하다가 이마만큼 해서 이런 극적인 말씀을 받게 됐어요. 작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해줘야 합니다. 큰 것은 사명자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니까 고쳐지지.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들 많이 고쳐놔어요. 하나님이 쓰면서 하셔서 그렇지 안 하면 못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겪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알고 있고 해야 돼요. 알고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 밖에 받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서해안 밀물을 멈추겠습니까? 인도양 밀물이 멈추겠습니까? 밀물이 멈출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에서 과거를 생각해요. 나는 3천 가지도 넘어요.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3천 가지도 넘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꼭 죽을 것인데 살려줬고 꼭 병들어 죽을 것인데 살려줬고 꼭 실수로 죽을 것인데 살려줬고.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바람도 안 보이고 세균도 많고 무섭게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화약, 화학약품들도 공기 중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쏘고 갑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도 무섭게 존재하고 있어요. 눈으로는 자기 영을 못 봅니다. 그러나 영계로 들어가면 보이죠. 혼체도 보이고 영체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성령님도 보이고 신도 보이고 절대신 뿐만 아니라 일반 영도 보이고. 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니. 나는 어릴 때부터 영들을 수십억씩 봤어요. 이와 같이 영계로 가면 영들이 보이고 육계로 가면 육들이 보이듯이. 혼계로 가면 혼들이 보입니다. 영계의 단계로 들어가면 영들이 보이죠. 영으로서 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알죠.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해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야비하다. 비굴하다. 조석으로 변한다. 노래로 지어놔요. 천 개의 노래를 작곡한다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를 넣어서 한 곡이 있어요. 나 여호와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신이다 할 수 있다 했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이 지구상에 죽을 고비에서 안 살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것을. 너를 내가 살려주듯이 다른 사람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살려줬다. 그냥 자기들 사는 대로 놔두면 몇 년 만가면 지구상이 텅 빈다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하고서 모든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오랫동안 참으셔. 그렇게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수백 개, 수천 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전쟁에서 도대체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해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선편이 이겨야지 했어요. 결국 선편이 이겼어요. 아주 불리한 조건 가운데 선편이 이겼어요. 40명 가지고 일개 연대를 쳤습니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제가 980정총을 꺼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월남 전쟁터에서 40만 명, 50만 명 갔는데 제일 공이 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아군이 죽는 법이 없었어요. 가장 위험한 중대였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중대는. 작전한 것이 600번이 넘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긴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패전하고 죽고 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내가 간 날부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후로 1년 동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것은 나도 잘 몰라요. 나는 감격해서 18년 동안 책을 4권 썼어요. 나머지 또 150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간증하고 증거 하고 가르치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명하시기를 더 사랑 받고 싶으냐? 그럼 여태껏 사랑해 줬던 것을 기억하라. 시대마다 더 좋게 사람들을 개발하지 않겠냐. 이 시대급의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를 통해 듣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했어요. 영계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이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한 500m 되는데 그 나머지 빼고 핵심지만. 지구상에
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기력지가 1200m. 높은 데는 50m씩 쌓고. 여기 와서 내 성전을 보라. 하셔
도 될 정도로 만들어놔어요. 기적의 역사다. 사람으로서. 표적의 역사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정도로 내가
했다. 나는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전들을 봤습니다. 여기 비해 봤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크긴 크구
만. 걸어가도 한참 걸어가고. 뛰어가도 한참 뛰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 주
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을 줘서 나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
셔서 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그 영들이 하늘의 최고 이상의 세계로 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온다는 세계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40년 동안. 지금도 여기있는
하나님의 의자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지구상에 제일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좁은 방
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주 그냥 최고 소망으로
여기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정원에 살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합니다. 행치
않을 때는 답을 못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하다. 제
일 불쌍하다. 가장 고장 많이 했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서울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걱정 중 하나
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먹을 게 있어야지. 쌀 단지에 쌀이 없었어요. 많이 굶으면 내가 70일 굶는데. 며칠
씩 굶으니까 그런 처지에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 쌀 단지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받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뒤집어놓는 사랑이었어요. 부모
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사랑해줍니다. 오직 하나님 보낸 메시아만이 구원을 해결합니
다. 선지자도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약인들 다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4천 년간 기다리다 결국 죽었잖
아요. 다시 온다 또. 구약 때도 다시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신약 때 다른 사람이 왔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했는데 세례요한이 왔어요. 그건 천륜의 법칙인데요. 구약 때는 구약에서 하고 신약 때는 신약
때 하나님이 뽑은 자가 또 해야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시대 지금 전에 100년 전의 사람이 또 못
하잖아요. 이 시대 일은 이 시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약인들은 구약 급의 천국, 신약인들은 신약 급의
천국. 이걸 천륜의 법칙이예요. 투자한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이와 같이 행한만큼 상대적인 세계가 이뤄집
니다. 조금만 못해도 표가 확 나고 조금만 잘해도 표가 확 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만 더 해도 표가
확 납니다. 조금만 해도 표가 확나요. 의로운 행실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은 것입니다. 뭘 하는 것
도 조금만 더하면 표가 나게 확실하게 좋아요. 조금만 못해도 못한 표가 확 납니다. 행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을 시켜놓고 보면 조금만 더하라고 감독들이. 조금만 더. 많이 더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
습니다. 뭐든지 겨눌 때는 조금이예요. 인생들이 모두 사람들이 프로라 할 때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못해요. 조금 더하다 보면 상승세를 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조금만 더하라. 이
시대는 조금만 더해서 황금천국으로 인도한다 했어요. 실존세계. 실제 있는 세계를 좋아해요. 나도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럼 마음이 기쁩니다. 그건 관념적인 기쁨이고 생각의 기쁨이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안 됩니다. 그건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생각과 마음이 실체가 되려면 실천해야 돼요. 그럼
그 실체가 생깁니다. 그건 평생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실체가 아닌 것은 바로 없어져 버려요. 사고,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면 실체가 돼요. 이 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육신이 생긴 자는 다 있습니다. 영이 험하게
생겼어, 악하게 생겼어. 영은 다 있어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때 영도 변화된다, 변형된다 했어요. 홀연
히 변화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육신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돼. 휴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휴거예요. 형제급 사랑은 2단계. 어떤 밑에 부러먹는 단계는 구약 시
대 종급 같이 1단계. 마지막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과일나무요. 중간에는 꽃이요. 마지막에
는 열매요. 꽃은 화려하지만 적지 못하죠. 실속 있는 것은 열매 시대예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역사하
신다. 실체의 존재자를 만들 때 실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저마다 자기 살 거처가 건설 되고
있다. 실체적인 기쁨과 관념적인 기쁨은 차이가 커요. 실존철학가. 관념철학가는 아닙니다. 이리므로 우리
가 실제로 얻고 실체의 역사를 만들어 봐야 돼요. 관념 세계는 이곳에 허름한 가건물 있을 때는 이런 이상
을 꿈꾸고 있을 때는 관념에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 것을 내놓아 보라 했어요. 그럼 그만큼 더
주겠다 했어요. 내놓는 대로 주겠다. 이것을 가지 수를 한 번 세어봐라. 이것이 크고 크니라. 매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라.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지도 알려라. 매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뭘 하지 않습니까? 빵 공장에 가면 사람이 10명이 기계에서 나오면 손놀림을 합니다. 안 하면 쌓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도 표가 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되고. 도와줬는데도 모르면 심정이 상하죠.